

보도시점 2023. 4. 30.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3. 4. 28.(금)

국립공원, 여의도 12배 면적(36km²) 확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확정

- 2018년부터 추진해온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확정, 5월 1일 변경고시
- 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협력적 공원관리 기반 구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22개 국립공원 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36km²가 추가되어 6,726.3km²에서 6,762.3km²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공원구역 포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지난 2018년부터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 국립공원계획 변경 경과 : (1차) 1997. 8. 착수 ~ 2003. 8. 완료 → (2차) 2008. 3. 착수 ~ 2011. 1. 완료 → (3차) 2018. 4. 착수 ~ 2023. 5. 완료

환경부는 국립공원계획 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등 선행절차를 마무리 짓고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완료했다.

환경부는 가야산 등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먼저 완료된 20개 국립공원 계획을 5월 1일 변경고시하고, 나머지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계획도 5월 말에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결과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구역은 당초 6,726.3km²에서 6,762.3km²로 확대된다. 편입과 해제 면적 등이 합산되면서 최종적으로 36km²(0.5%)가 추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립공원으로 가치가 인정된 지역 72.2km²*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다.

* 필지 분할·합병, 지적선형 또는 대장면적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 + 4.9km² 포함

주민편의나 지역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하여 해제 면적 이상 대체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 항·포구 등 36.2km²는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주요 지역으로는 지리산 밤머리재, 태안해안 신두리사구와 장안사퇴 일원 등이 있다. 지리산 밤머리재는 반달가슴곰 서식이 확인된 곳이며, 인근 웅석봉 국립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태안해안 신두리사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구지대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장안사퇴는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최대 길이 35km, 폭 4km의 대규모 모래섬으로 경관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다.

둘째,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원구역 내 용도지구도 변경된다.

핵심지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가 0.8%p 증가(22.6%→23.4%)한 1,580.7km²로 57.4km²가 확대된다.

주민생활 유지와 사찰의 문화재 보전을 위한 공원마을지구와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주민·종교계 의견을 반영하여 각각 99곳과 54곳이 신설 또는 확대된다.

셋째, 국립공원 내에 설치되는 탐방안내소, 탐방로 등 공원시설도 공원 시설이 위치한 용도지구의 취지, 탐방객 이용 행태, 향후 설치 소요 등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된다.

그 밖에도 환경부는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부처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도 추진할 계획이다.

차기 국립공원계획 변경부터는 관계 행정기관이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작 단계부터 참여하고, 이번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 이후 국립공원에 새롭게 편입되는 국·공유림에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통보한 경우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된 지역을 포함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원보호협약 체결, 주민체감 및 지역 맞춤형 마을지원사업 확대 등 국립공원 내 지역·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총 5년이 소요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원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확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라며, “앞으로 국가대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주요내용 (22개 공원).
2. 해제·편입 현황.
3. 주요편입지 설명.
4. 인포그래픽. 끝.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	책임자	과 장	배연진 (044-201-7316)
		담당자	서기관	정지민 (044-201-7312)



붙임 1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주요내용 (22개 공원)

- ① (공원구역) 공원가치 인정 지역 편입 및 공원가치 상실지역 해제, 주민 편의 및 공익사업을 위한 상호교환(해제·대체편입) 등을 통해 공원구역 확대 및 공원가치 향상

(면적 : (변경 전) 6,726.3km² → (변경 후) 6,762.3km², 36.0km²(0.5%) 확대)

※ (주요편입지) 지리산 밤머리재, 태안해안 신두리사구 및 장안사퇴, 변산반도 위도 망월봉, 다도해해상 적대봉 등

(단위 : km²)

구 분	변경 전	증 감			변경 후
		증가*	감소	계	
공원구역	6,726.3	72.2	△36.2	36.0	6,762.3

* 편입(67.3km²) 및 필지 분할·합병, 지적선형 또는 대장면적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4.9km²)

- ② (용도지구) 공원가치가 우수한 지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존지구 확대
(보존지구 면적 : (변경 전) 1,523.3km²(22.6%) → (변경 후) 1,580.7km²(23.4%), 57.4km²(0.8%p) 확대)

○ 또한, 주민·종교계 의견수렴에 따라 마을지구* 및 문화유산지구** 확대

* 주민생활 유지에 필요한 마을지구(북한산 무수굴 등) 99개소(신설 14, 확대 85)

** 사찰의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한 문화유산지구(한려해상 용문사 등) 54개소(신설 25, 확대 29)

(단위 : km²)

구 분	변경 전	증 감	변경 후
계	6,726.3 (100%)	36.0 (-)	6,762.3 (100%)
공원자연보존지구	1,523.3 (22.6%)	57.4 (+0.8%p)	1,580.7 (23.4%)
공원자연환경지구	5,174.0 (76.9%)	△24.5 (-0.8%p)	5,149.5 (76.1%)
공원마을지구	10.3 (0.2%)	2.3 (-)	12.6 (0.2%)
공원문화유산지구	18.7 (0.3%)	0.8 (-)	19.5 (0.3%)

- ③ (공원시설) 용도지구, 공원시설의 성격, 탐방객 이용 행태 및 향후 설치소요 등을 종합검토하여 공원시설 신설·폐지

(시설수: (변경 전) 1,761개소 → (변경 후) 1,748개소, △13개소)

붙임 2

해제·편입 현황

☐ 해제

(단위 : km²)

구분	계	주민편의	공익사업				
		농경지 등	소계	항·포구 정비	문화· 관광	교통· 운수	멸종위기종 복원
면적	36.2	26.3	9.9	5.7	2.9	1.3	0.02

☐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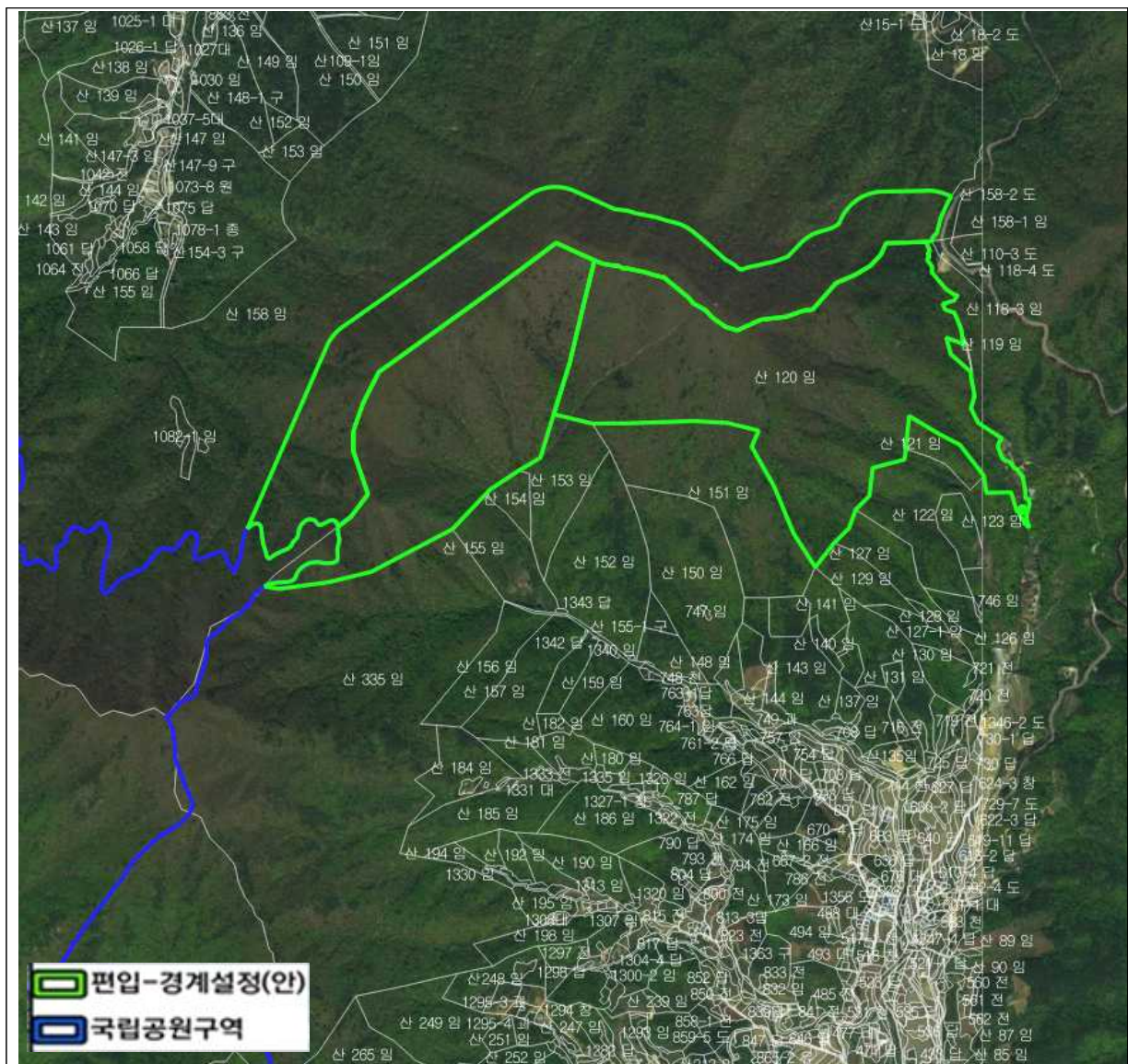
(단위 : km²)

구분	면적	주요편입지(공원명)
계	67.3	-
육상	30.8	밤머리재(지리산), 신두리사구(태안해안), 적대봉(다도해해상), 망월봉(변산반도) 등
해상	36.5	장안사퇴 일원(태안해안), 도서 및 주변해상 40개소(해상공원) 등

※ 그 밖에 필지 분할·합병, 지적선형 또는 대장면적의 변경 등에 따른 오차(+4.9km²)로
공원구역 면적 증가

1 지리산국립공원 밤머리재

- (편입면적) 1.668km²
- (편입가치)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지리산과 웅석봉 생태축을 연결하는 지역



편입지 현황(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금서면 지막리 일원)

□ (편입면적) 0.744km²

□ (편입가치) 전형적인 사구지대로 내륙과 해안을 이어주는 완충 역할을 하며 경관·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천연기념물 제431호)

※ 당초 신두리사구 외곽 부분만 공원구역이었으나 금번에 신두리사구 전부와 주변 해상이 국립공원으로 편입



3

태안해안국립공원 장안사퇴 일원

□ (편입면적) 12.967km²

□ (편입가치) 조류의 산란 및 먹이활동 공간이자 해양생물의 서식처 기능을 하고, 인근 해안에 대한 자연방파제 기능을 하는 곳으로 보호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

※ (장안사퇴) 학암포 앞바다 약 10km 부근에서 대조기(또는 사리)*의 썰물때만 나타나는 거대한 모래섬(최대 길이 35km, 폭 4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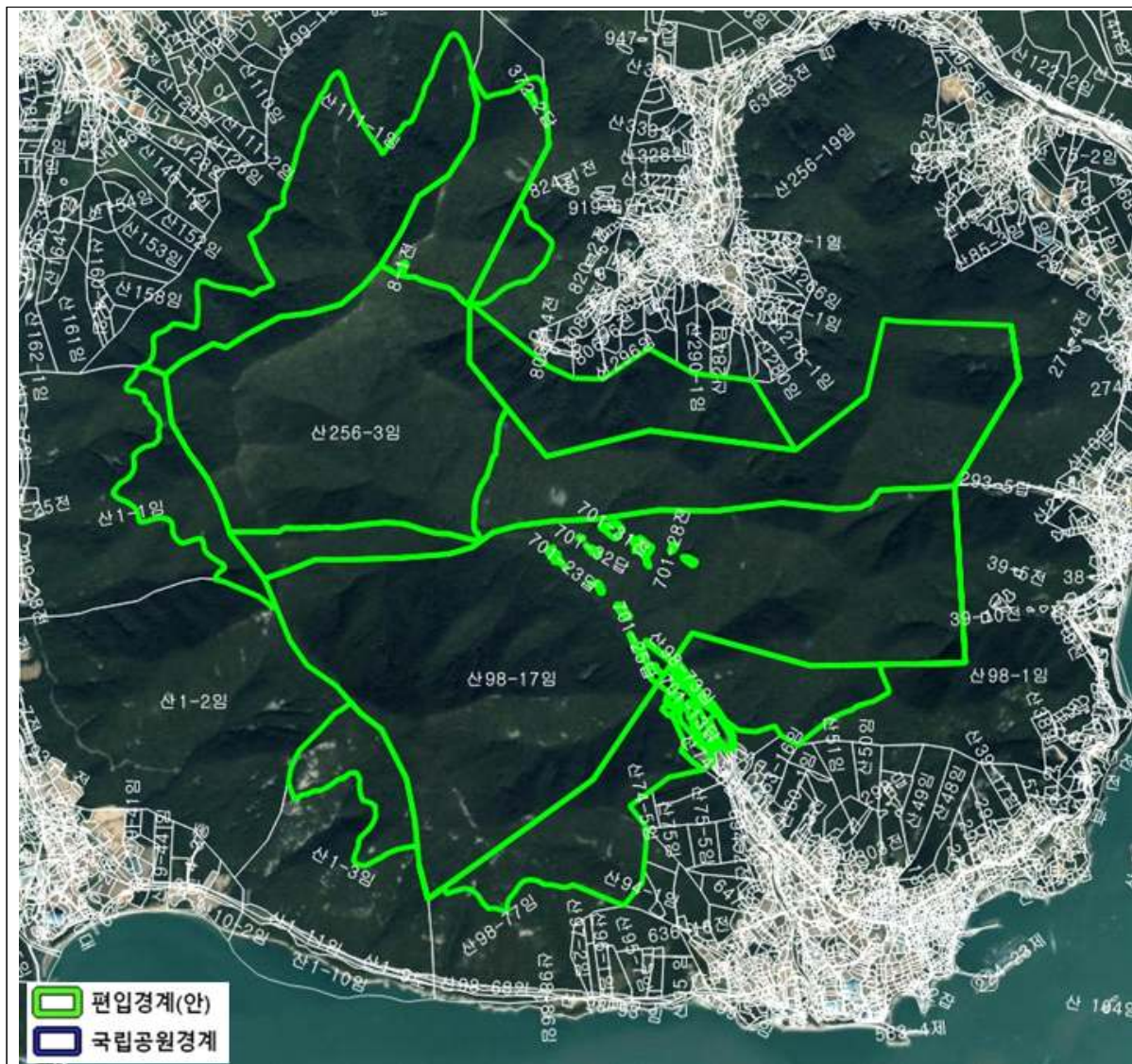
*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 3~4일



편입지 현황(충남 태안군 학암포 일원)

장안사퇴 전경

- (편입면적) 9.475km² ※ 이 중 1.567km²를 공원자연보존지구(용도지구)로 지정
- (편입가치)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9종*)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며, 상록활엽수림과 비자나무, 단풍나무 자생지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
- * 조류 8종(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새호리기, 큰말뚝가리, 팔색조, 긴꼬리딱새, 흑비둘기), 양서파충류 1종(구렁이)



편입지 현황(전남 고흥군 금산면(거금도) 신평리 일원)

변산반도국립공원 위도 망월동

-

편입지 현황(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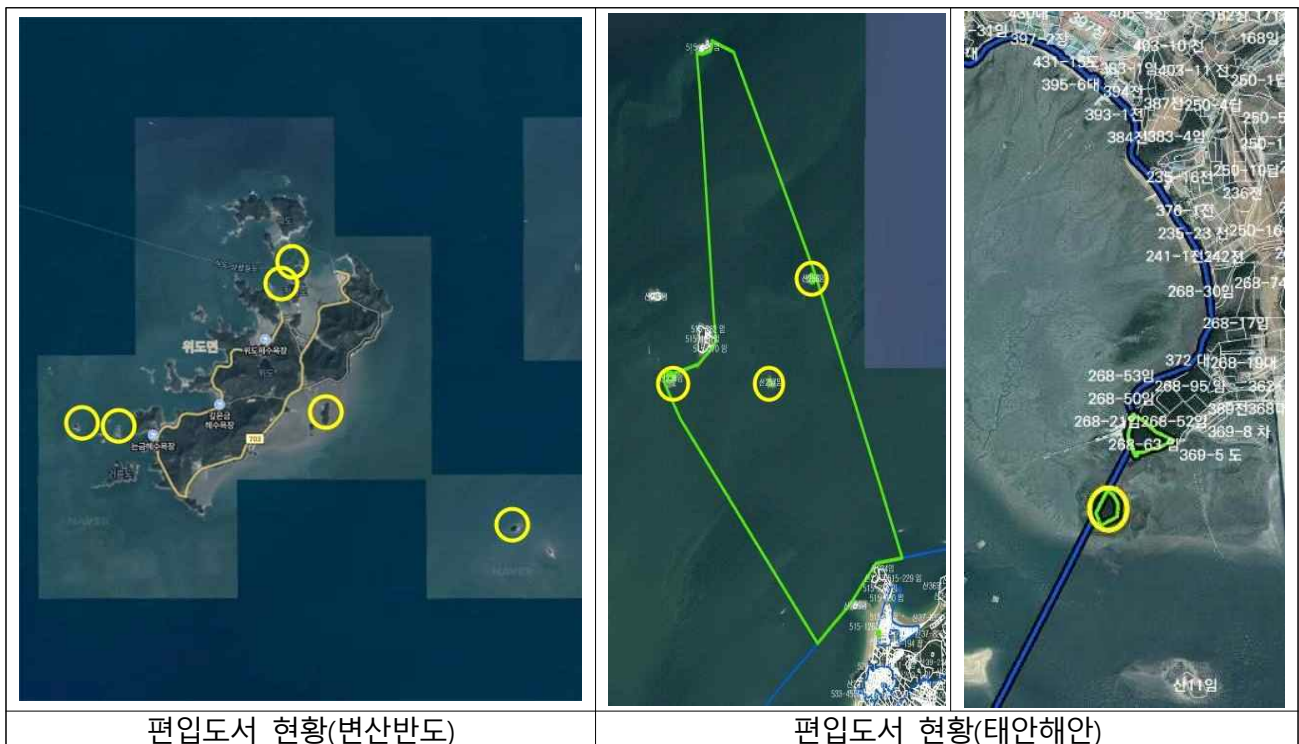
6

해상 국립공원 편입도서 및 주변 해상

□ (편입대상) 40개 도서(특정도서 25개 포함)

구 분	도서명
변산반도(6개)	내조도, 외조도, 대형제도, 탄정금도, 외지도, 세항도
태안해안(4개)	방행도, 구도, 연도, 탄섬
다도해해상(18개)	소평여도, 구도, 매물도, 송도, 갈매기섬, 중갈매기섬, 솔섬, 상방고도, 중방고도, 하방고도, 밀매도, 진섬, 고여, 멍섬, 간여암(소간여 포함), 고여도, 두랑여, 간여
한려해상(12개)	악도, 향기도, 대구을비도, 소구을비도, 목도, 콩섬, 백서, 구들여, 새여, 떨어진여, 남여도, 북여도,

□ (편입가치)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높은 도서지역





편입도서 현황(다도해_소안청산지구)



편입도서 현황(다도해_조도지구)



편입도서 현황(다도해_금오도지구, 거문백도지구)



편입도서 현황(한려해상)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지역사회와 함께 국립공원 관리 수준을 높입니다

공원구역

국립공원 면적이 확대됩니다



용도지구

핵심지역 보전, 주민과 상생협력, 문화유산 보전도 강화합니다

